

제2절 가신신앙(家神信仰)

1. 가신신앙의 개요

가신신앙이란, 집안 곳곳에 신이 있어 집안을 보살펴 준다고 믿고 이에 따른 의례를 행하는 가정 단위의 신앙 형태를 말한다. 이를 흔히 ‘가내신앙’, ‘가정신앙’, ‘집지킴이’ 등으로 칭한다. 제의(祭儀) 담당자는 주로 여성[안주인]이며 무속이나 유교 제례처럼 체계적 논리성이나 형식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축원의 내용도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의례행위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주로 가정의 기복(祈福)과 자손들의 무병장수, 발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대단히 소박하고 실제적인 신앙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신신앙은 과거 전통사회에서 기층 민중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 형태라 할 수 있다.

2. 울진지역 가신신앙의 대표적 유형 및 특성⁷⁰

1) 제미고사와 중구고사의 성격

시절제 가운데 수확과 관련된 것은 울진군 최북단인 북면 나곡6리부터 최남단인 후포면 금음4리에 이르는 연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이 제사를 두고 울진읍 이남 지역에서는 제미고사나 신미고사라는 명칭을 우세하게 사용하고, 울진읍 이북 지역에서는 가을제사나 시월제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명칭에는 차이가 있지만 제의의 목적이 수확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닮아 있다.⁷¹ 내륙지역에서는 근남면 구산1리와 평해읍 삼달1리에서 제미고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제미고사는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제의라고 할 수 있다.

중구고사는 어로 활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인식된다. 가을 고기잡이를 하는 기간에 자리한 것도 그렇지만, 기성리나 사동2리의 사례처럼 어민들을 중심으로 제의를 봉행한다는 점에서도 중구고사와 어로 활동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다.⁷²

직산1·2리, 거일1·2, 봉산2리 등 평해읍과 기성면의 일부 어촌에서는 제미고사와 중구고사를 따로 지낸다. 이들 지역에서는 제미고사를 햇벼를 천신하는 농경수확제로, 중구고사를 풍어기원제로 나누어 인식하는 특징을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제미고사를 지내는 시기의 차

70. 가신신앙의 유형과 특성은 ‘한양명 외, 2012, 「울진의 세시풍속과 놀이」 『울진민속총서』3-1~3』를 발췌, 요약하였다.

71. 아래에서는 수확제의 성격을 갖는 동제를 제미고사로 통칭한다.

72. 기성리에서는 대보를 동제를 동회에서 주관하고 중구고사를 어촌계에서 주관함으로써 중구제사의 어업제외적 성격을 드러낸다. 사동2리의 경우 대보를 동제를 성향제로, 중구고사를 해신제로 부르며 제의의 목적을 차별화한다.

이다. 제미고사의 봉행 시기는 수확 시기와 연동된다. 벼를 위시한 농산물을 천신하는 제미고사와 풍어를 기원하는 중구고사를 따로 지내는 지역에서는 벼의 수확 시기를 중요하게 고려해 8월 이전에 제미고사를 지내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 비해 제미고사만 지내는 지역에서는 벼뿐만 아니라 잡곡의 수확이 끝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8월 이후에 제미고사를 지냄으로써 풍농과 풍어에 대한 종교적 기원을 제미고사 하나로 통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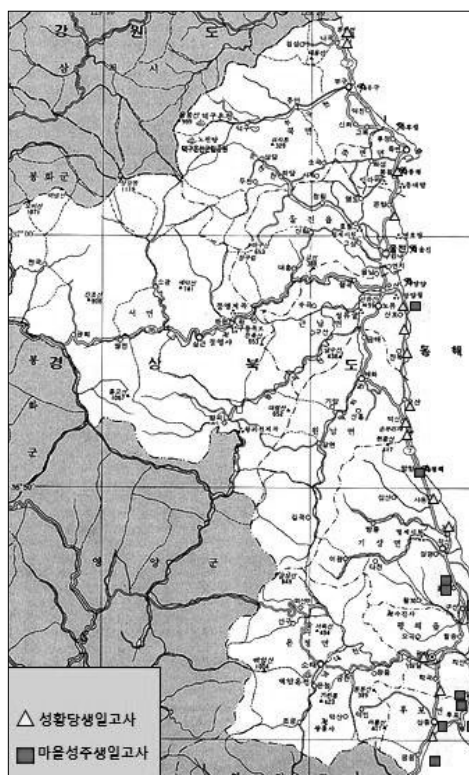
한편 선주들이 개별적으로 제미고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기성면 구산1리에서는 중구에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를 지내는데, 이와 별도로 햇곡이 나면 선주들이 개인적으로 성황당을 찾아 제미고사를 지내면서 풍어를 기원한다.

2) 생일고사의 분포와 의미

생일고사는 대부분 연안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동제로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⁷³ 하나는 성황당 신축일을 기념해 지내는 ‘성황당생일고사’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회관 신축일을 기념하는 ‘마을성주생일고사’이다.

내륙지역에서는 농업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연안 지역에서는 지리 생태적 조건 외에 문화적·경제적 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주요 생업을 결정한다. 보통 농업과 어업을 겸하는 반농반어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더러는 연안 지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농업에 의존하는 마을도 있다. 예컨대 근남면 수산리나 평해읍 월송리는 바다와 접하면서도 어업의 비중이 극히 적다. 이들 마을은 비교적 평야가 발달한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위험이 덜한 농업을 주된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안 지역에 위치하지만, 농촌이던 곳이 어촌으로 변한 예도 있다. 근남면 산포2리는 일제강점기 전까지 전적으로 농업에 생계를 의존했지만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어업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집이 늘기



<그림 37> 생일고사 분포

73. 평해읍 삼달1리에서도 성황당성주생일고사를 지낸다. 하지만 앞서 제미고사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달1리의 경우 어촌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농촌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생일고사는 어촌의 특수한 문화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없던, “물질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영등제”를 지내는 가정이 생겨났고, 성황신을 바다가 보이는 곳에 새로 모시기 위해 당집을 신축하기도 했다. 근래에 와서는 주민 수의 감소와 고령화 등을 이유로 어업에 대한 비중이 줄면서 다시 농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주요 생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은 농촌과 어촌의 성격을 공유하는 마을이 됐다.

연안 지역에 위치하면서도 농업을 위주로 하는 월송리의 경우 성황당성주가 없고 당연히 생일고사도 없다. 그러나 산포2리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 마을에서는 어업이 성행하면서 성황당을 신축했다. 그전까지는 마을 뒤쪽 골짜기 입구에 있던 신목을 신당으로 여겼지만, 본격적으로 어업을 시작하면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성황당을 건립한 날에 생일고사를 지낸다. 월송리와 산포2리의 사례는 같은 연안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어업을 주요 생업으로 하지 않으면 성황당성주를 모시지 않고 이에 따라 생일고사도 지내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생일고사는 어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제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마을회관 성주는 평해권 연안 지역에서 주로 보이는 신격이다. 가정신앙의 최상위 신격인 성주가 마을회관에 좌정하고 주민들이 모두 같은 성주를 섬김에 따라 마을 성주는 마을주민들을 마치 하나의 가족공동체처럼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별고사의 관행과 두 유형

울진지역의 동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별고사이다. 별고사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동제를 지낸 뒤에 마을에 번고가 있으면, 그 원인이 동제를 잘못 지낸 데 있다고 여겨 다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나 있었을지도 모를 부정을 가시기 위해서 동제를 지내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항상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전자를 임시형 별고사라고 한다면, 후자는 정시형 별고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별고사의 전승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2> 별고사의 전승 상황

읍·면	리	시기	임시/ 정시	비고 (연안/내륙)
북면	나곡1리	동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냄.	임시	연안
	나곡3리	동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냄.	임시	연안
	부구1리	50년 전까지 2월 보름에 지냄.	정시	내륙
죽변면	죽변3리	동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냄.	임시	연안

읍·면	리	시기	임시/정시	비고 (연안/내륙)
울진읍	연지1리	약 50년 전까지 동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냈음.	임시	연안
	온양2리	동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냄.	임시	연안
	읍남3리	약 20년 전까지 동제를 지낸 뒤 보름 안에 날을 잡아 재고사再告祀를 올림.	정시	연안
근남면	산포3리	80년대 중반까지 동제나 별신굿을 지내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지냈음.	임시	연안
	노음3리	동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냄.	임시	내륙
	진북1리	동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냄.	임시	연안
	수곡2리	약 30년 전까지 동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냄.	임시	내륙
매화면	덕신1리	25년 전에 마을에 사고가 생겨서 지냄.	임시	연안
	오산2리	동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냄.	임시	연안
평해읍	거일1리	약 20년 전까지 동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냄.	임시	연안
	거일2리	30년 전까지 큰고사[삼월보름 동제]를 지낸 다음 일주일 안에 지냄.	정시	연안
	직산1리	돌림병이나 인명사고가 나면 날을 받아서 지냄.	임시	연안
	직산2리	동제를 지낸 뒤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중구 무렵에 날을 받아 지냄.	임시	연안
기성면	망양1리	20년 전까지 동제를 지낸 월내에 ‘받침제사’를 지냄.	정시	연안
	구산리	마을에 흉사가 겹치면 지냄.	임시	연안
	봉산2리	50년 전까지 동제나 별신굿을 지내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지냄.	임시	연안
후포면	후포리	대보름 제사 이후 열흘 뒤에 지냄.	정시	연안
	삼울2리	동제나 별신굿 후 마을에 탈이 생기면 지냄.	임시	연안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별고사를 지내는 마을은 대개 연안 지역 어촌에 집중되어 있다. 별고사를 지내는 전체 23개 마을 가운데 20개 마을이 어촌이고, 3개 마을만 농촌이다. 23개 마을 가운데 정시형은 5개 마을로서 임시형에 비해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별고사의 전형적인 형태는 어촌에서 지내는 임시형이라고 할 수 있다.⁷⁴

3. 가정신앙의 다양한 모습들

1) 텃제

일반적으로 안택은 매년 또는 삼 년 주기로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풍요를 위해서 성주를 비롯한 가신을 대상으로 지내는 제사로서 햇곡을 수확한 뒤인, 시월이나 정초

74. 농촌 지역의 3개 마을에서도 별고사를 지낸 것으로 보아, 시간을 더 소급하면 내륙지역에 별고사가 더 넓게 분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현상에서 드러나듯, 별고사가 어촌에서 더 강한 전승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에 지내게 마련이다.⁷⁵ 한편 텃제는 터주고사, 터주제, 텃고사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에게 집안의 평안을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⁷⁶

울진지역의 텃제는 그 주재자가 주부이고 대개 비손형태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안택⁷⁷, 그리고 터주신만을 위하고 신체를 별도로 설정한 경우가 많은 일반적인 터주제사와 구별되면서도 양자의 성격을 공유하는 복합성을 보여준다.

2) 대보름차례

울진지역의 대보름차례의 제사절차는 진설—헌작—재배—소지올리기가 일반적이었다. 이로 보아 대보름차례는 아침 일찍 가장이 안방에서 불특정 조상을 대상으로 거행한 제의로서 찰밥을 주요 제물로 삼아 간단한 절차로 진행한 제의였다고 하겠다. 제사시간은 모두 찰밥을 먹기 전이고, 제사공간은 모두 조상이 좌정한 안방이었다. 또한 주요 제물은 찰밥이다. 울진지역에서 전승한 대보름차례는 제사의 대상과 절차가 유교식 차례와 다르고, 주부 홀로 또는 부부가 함께 제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교식 차례 이전 또는 유교식 차례와 더불어 전승된, 세수를 기념하는 조상제사의 전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울진 일부 지역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설과 마찬가지로 대보름을 맞아 수세하고 조상에게 비유교식 차례를 지냄으로써 대보름을 또 하나의 세수, 특히 농업력상의 세수로 인정해온 관행을 일정하게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표 23> 대보름차례의 사례

읍·면	리	대상신	제관	시기	장소	제물	제차	목적	비고
죽변면	후정1리	조상	주부	새벽	안방	찰밥, 갯, 탕, 김, 어물, 과일, 술	진설-헌작-재배-비손	풍년 가족평안	찰밥과 갯 두 그릇, 탕 한 그릇을 올림.
근남면	노음3리	조상	가장	아침	안방	찰밥, 탕, 어물, 나물, 술	진설-헌작-절-소지	가족건강 평안	
평해읍	삼달1리	조상	가장	아침	큰방	찰밥, 갯, 탕, 나물	진설-헌작-재배-소지	집안안녕 가족건강	
	월송1리	조상	가장 주부	아침	안방	찰밥, 갯, 탕, 어물	진설-헌작-절-소지/비손	가족의 건강과 평안	찰밥 한 그릇에 손가락 하나 꽃음.

75. 이기태, 2011, 「안택」『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2, 국립민속박물관, 441~442쪽 참조.

76. 김명자, 2011, 「터주고사」『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2, 국립민속박물관, 711쪽 참조.

77. 이기태, 2011, 앞 논문 참조.

읍·면	리	대상신	제관	시기	장소	제물	제차	목적	비고
기성면	방울리	조상	가장	아침	안방	찰밥, 갯, 어물, 나물, 제주	진설-재배-헌작-소지	풍농기원 집안안녕	
	다천2리	조상	가장	아침	안방	찰밥, 갯, 탕, 어물, 나물, 과일제주	진설-재배-헌작-재배-비손-소지	풍농기원 가족건강	찰밥 한 그릇에 조상 수대로 손가락 4개를 꽃고 술 4잔을 올림.
	황보1리	조상	가장	아침	안방	찰밥, 갯, 탕, 어물, 나물, 제주	진설-재배-헌작-소지	풍농기원 가족건강	찰밥 한 그릇을 올리고 손가락은 식구 수대로 꽃음.
온정면	덕인1리	조상	가장	새벽	안방	찰밥, 탕, 어물, 나물, 술, 떡	진설-절-소지	가정평안 풍년기원	찰밥 한 그릇에 가족 수대로 손가락을 꽃음.
후포면	금음3리	조상	가장 주부	아침	안방	찰밥, 나물국	진설-재배-비손	가족평안 풍년기원	

3) 산맥이의 유형

산맥이 유형은 울진지역 조사에서 전체 50개 마을 가운데 35개 마을에서 47개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울진지역에서 전승된 산맥이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를 위한 산맥이

초파일에는 산맥이를 했다. 신체로 여기는 단지는 외양간에 보관했으며 ‘산단지’라고 불렀다. 산단지 안에는 팔월에 추수한 나락을 채워 두었다가 이듬해 산맥이를 할 때 메와 떡을 만들었다.

고성리 남정우 씨 댁은 뒷산의 소나무를 위했다. 이 소나무를 ‘소서낭’이라고 불렀다. 초파일 새벽이 되면 ‘소서낭’이 있는 곳으로 가서 메, 갯, 떡, 나물, 제주 등을 진설한 뒤에 비손 하면서 소의 순조로운 성장과 가족의 건강을 빌었다.

가정에 따라 소서낭을 찾지 않고 다락이나 마구간 등 산단지를 모셔놓은 곳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산맥이에 쓴 제물은 제사를 지낸 뒤 식구들끼리만 나눠 먹었다.

(2) 아이팔기와 결합한 산맥이

신화1리 마을에서는 초파일 또는 따로 정한 날, 자녀의 건강과 가축의 무탈 등을 기원하며 산의 나무나 바위 또는 집안에 모신 산동우 앞에서 산맥이를 했다. 또 손이 귀한 집에서 아이의 명을 길게 하려고 “아이를 판” 나무와 바위 등을 찾아가 메, 나물, 과일, 실타래 등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3) 집에서만 한 산맥이

신화1리 남순려 씨 댁에서는 집안의 외양간에 산동우를 모셨다. 초파일 아침이 되면 산

에 가지 않고 산동우 앞에 메, 나물, 과일 등을 진설한 뒤, 주부가 소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 자식의 무사안녕을 빌면서 비손했다. 산동우에는 햇보리와 햇나락을 교대로 갈아주었으며,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나 아플 때, 그리고 가족이 병에 걸리는 등 문제가 생길 때도 정화수 한 그릇을 떠 놓고 비손을 했다.

최숙희 씨 댁 역시 집안에서 산동우를 모셨다. 산동우를 모시는 목적은 소를 위한 것이었다. 이 댁에서도 햇곡식이 나면 산동우 안에 있던 곡식을 갈아 넣었으며, 묵은 곡식은 꺼내서 음식을 만든 뒤 가족들끼리만 나누어 먹었다.

(4) 칠성신앙과 결합한 산맥이

후포3리의 평해 황씨 집안의 며느리들은 앞산에 있는 ‘재강골’을 찾아가 일 년에 두 번, 즉 햇밀이 날 때와 햅쌀이 날 때 제사를 지냈다. 그곳에는 예로부터 황씨집안의 주부들이 제를 지내던 나무가 있는데, 나무 아래 ‘칠성단지’를 묻어두고 ‘칠성당’이라 하였다. 평해 황씨들은 늘 “우리 칠성”임을 강조하면서 햇곡이 나면 조상에게 올리기 전에 먼저 칠성당을 찾았다. 햇밀이 날 때는 국수를 올리고 햅쌀이 날 때는 메와 나물을 올렸으며, 각각 ‘밀제미’, ‘쌀제미’라고 했다.

4) 복제

복제는 농신제(農神祭)의 일종이다. 농신제는 그 시기와 성격에 따라 파종제와 성장제로 나뉘 볼 수 있다. 논밭의 벼를 비롯한 작물의 파종기에 지내는 파종제에서는 풍농을 기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비해서 성장제는 벼와 밭작물이 한창 자라는 시기에 행하는 것으로서 농업용 물의 안정적 공급과 병충해나 농작물을 해치는 금수로부터 작물을 보호함으로써 풍농을 보장받으려는 의지를 담은 제의이다.⁷⁸

울진지역에서 복제는 곧 수신이자 농신인 용에게 바치는 제사였다. 이 때문에 울진사람들은 복제를 ‘용제’라고 하거나 “용맥이다.”고 했다. 복제를 주관한 것은 가장이었다. 제사 시기는 삼복중인데 초복에 지내는 걸 원칙으로 하되 중복이나 말복 무렵까지 늦춰 지내기도 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은 자신이 소유한 논밭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이었다.

복제의 제물로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밀가루로 부친 노치였다. 노치 외에도 백설기와 시루떡, 송편 등을 더하는 경우도 있었다. 울진지역의 복제는 용신에게 새로 수확한 밀로 부친 노치를 천신함으로써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길 기원하고, 병충해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인 농경성장제의라고 하겠다.

78. 농신제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김도현, 2011, 『농신제』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1, 국립민속박물관, 101~107쪽을 참조하기 바람.

울진지역에서는 파종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 복제라는 이름의 성장제가 보편적으로 전승되었다. 전체 50개 마을 가운데 41개 마을에서 복제를 전승했음이 확인되었다.

(1) 갈면리의 복제

복날에는 ‘용제[복제]’를 지내는 가정이 많았다. 주로 초복과 중복에 복제를 지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말복에 지내는 가정도 있었다. 복제를 지내는 시간도 각 가정에 따라 달랐다. 반홍식 씨는 아침 일찍 복제를 지내 다른 사람들로 인해 부정을 타는 것을 막았다. 다른 이들은 하루 중 언제 복제를 지내도 별 상관이 없다고 했다.

복제를 지낼 때는 제물로 노치를 만들어 가는데, 형편이 나은 집에서는 떡을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떡은 보통 ‘백점[백설기]’으로 준비했다. 논밭으로 가면 그 가운데로 들어가 대나무를 꺾고 약 20cm 정도 길이의 종이를 묶어놓았다. 그다음에는 노치를 종이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하며 “윗 눈에 용왕님요 아래 눈에 용왕님요, 부디 한 해 농사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원을 했다. 그런 다음에는 호박잎에 찐 노치와 떡을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왔다.

(2) 신림리의 복제

초복이나 중복에는 복제를 지내는 가정이 많았다. 이를 두고 “복땀 한다.”, “복 해 먹는 다.”라고 했다. 제물로는 노치와 백설기, 송편 등이 있는데, 주로 노치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들기름으로 부친 노치를 제물로 사용하면 기름 냄새가 퍼져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복제는 가장 큰 논이나 농사가 잘되는 곳에서 지냈다. 복제를 지낼 때는 제물과 함께 대나무와 한지를 가져갔으며 가장이 제사를 주관했다. 먼저 논 가운데에 한지로 찐 제물을 묻고 논두렁으로 나와 절을 했다. 그리고 “올 한 해 농사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비손을 했다. 그런 다음 제물을 묻은 곳으로 가서 한지를 묶은 대나무를 꽂아 복제 지낸 곳임을 표시했다.

(3) 온정1리의 복제

초복 무렵이면 논이 많은 집에서만 복제를 지냈다. 이를 두고 “용땀인다.”라고 했다. 복제를 지내기 위한 떡은 쌀로 만든 쌀떡과 수수로 만든 수꾸떡, 쑥으로 만든 쑥떡을 준비했다. 이 떡들을 ‘용알’이라고 불렀다. 오후가 되면 가장이 제물을 들고 논으로 가서 1m 30cm 정도의 시누대를 꺾고 그 윗부분에 50cm 정도 길이의 한지를 매달고 논바닥에 한지를 펴고 제물을 차렸다. 가장은 “우리 눈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용님이 잘 봐주십시오.”라고 축원했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논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가장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를 지냈다.

5) 제미고사

햇곡식과 과일, 또는 물고기를 처음 잡으면 신에게 바치는 관행이 전승되었다. 그해 처음 수확한 밀과 보리, 벼 등의 곡물을 비롯해 배와 참외, 앵두 등의 과일, 청어와 조기 등의 바닷고기 등을 가신과 조상에게 바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⁷⁹

일찍이 김택규는 수확의 세시로서 특히 유두천신과 추석천신, 그리고 고사천신을 주목했다. 그는 유두천신의 경우, 문헌상의 기록이나 조사자료로 볼 때 도미천신(稻米薦新)의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남한에서는 유월보름이 수도(水稻)의 수확기로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밭작물의 천신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으로 봤다.⁸⁰ 울진지역에서 햇벼를 도정해서 햅쌀을 바치는 가을 천신은 두 가지 계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제미고사이고 다른 하나는 추석 또는 중구차례이다. 울진지역의 제미고사는 다른 지역의 고사천신이 조상과 성주 등 가신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서 주로 조상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⁸¹ 제미고사는 주로 조상에게 햅벼를 천신하는 제의로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울진지역에서 햅벼를 도정해서 햅쌀을 바치는 가을 천신은 두 가지 계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제미고사이고 다른 하나는 추석 또는 중구차례이다. 울진지역의 제미고사는 다른 지역의 고사천신이 조상과 성주 등 가신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서 주로 조상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제미고사는 주로 조상에게 햅벼를 천신하는 제의로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제미고사의 사례이다.

(1) 신림리의 제미고사

제미고사는 팔월쫄에 조상에게 햇곡 수확을 감사하며 지내는 제사이다. 아직 나락이 제대로 익지 않았을 경우, 비교적 더 여문 나락을 서너 단 정도 베어다 탈곡한 뒤에 찌서 말리고 도정해서 메를 지었다. 제물로는 메와 가자미, 명태, 고등어 등의 어물, 대추, 밤, 배 등의 과일, 그리고 제주를 올렸다. 제물 마련이 끝나면 아침 여섯 시 경에 안방이나 마루에서 가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정에 따라 주부가 제미고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제물이 진설되면 가장은 “제일 먼저 지은 곡식이라 조상님께 제사를 올립니다.”라고 하며 제주를 한 잔 올리고 절을 한 후 소지를 올렸다. 조상 소지와 가장소지, 가족소지 순으로 진행한다. 제사가 끝나면 식구들끼리 음복했다.

79. 천신에 대해서는 ‘김지옥, 2011, 『천신』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2, 국립민속박물관, 650~653쪽’을 참조하기 바람.

80. 김택규, 1991, 『한국농경세시의 연구—농경의례의 문화인류학적 고찰』, 영남대학교출판부, 311~316쪽 참조.

81. 고사천신의 전승양상에 대해서는 ‘김택규, 1991, 위 글, 327~343쪽’을 참조하기 바람.

(2) 월송1리의 중구차례

추석 때 햅쌀을 마련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먼저 묵은 쌀로 차례를 지낸 뒤 중구에 햅쌀로 메를 지어서 한 번 더 차례를 지냈다. 중구차례를 지낼 때는 이미 추석 때 차례를 지냈기 때문에 제물은 간단하게 장만했다. 주민들은 조상님들이 후손을 돌봐준 덕에 무사히 곡식을 수확한 것이기 때문에 추석 때 차례를 지냈더라도 햅쌀이 나면 반드시 천신(薦新)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

(3) 후포3리의 밀제미고사

밀을 수확하고 나면 빵아온 밀로 국수를 만들어 조상에게 바쳤다. 이를 두고 “밀제미한다.” 또는 “국수제미한다.”라고 했다. 제사는 가장이 주로 저녁에 조상이 좌정한 안방에서 지냈다. 제물은 그릇 가득 담은 국수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뿐이었다. 국수를 차리면 가장이 절을 한 뒤 “농사지어 장만한 국수를 올립니다. 다음 농사도 잘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축원했다. 그리고는 이웃과 친척들을 불러 국수를 나눠 먹었다.

6) 미역 짬고사

울진 해촌에서는 동짓달부터 이월 초하루에 이르기까지 마을마다 정한 날에 짬고사를 지낸다. 짬고사는 흔히 ‘미역바위’라고 하는 해안 근처의 수중 바위인 짬에 미역이 많이 나기를 기원하는 제사이다. 음력 9월경이 되면 각 어촌계원은 짬을 배정받는데 이를 ‘짬구지[짬추침]’라고 한다. 미역 생산이 많은 곳에는 인원을 많이 배정하고, 비교적 소출이 적은 곳에는 적게 배정한다. 짬구지를 주관한 조직은 마을 원로들의 모임인 노반계이다. 노반계에서는 미리 한지로 짬의 이름을 적은 ‘구지’를 만들어서 당일 추침에 참여한 사람들이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짬을 배정받으면 짬별로 대표자를 뽑는다. 동지를 앞두고 미역 포자가 많이 착상할 수 있도록 짬을 손질하는 ‘기세닭이[기세작업, 계닭이]’를 한다. 동지가 지나면 수온이 낮아져 미역포자가 바위에 붙기에 적절한 수온이 된다. 동지가 지나고 나서 하는 기세닭이는 오히려 미역 포자가 붙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지 전에 작업을 끝내야 했다. 기세닭이는 바위에 붙은 잡풀을 뽑아내고 그 표면을 긁어내는 작업으로써 ‘씨래[씨래]’라는 도구를 이용했다. 기세작업이 끝나고 이듬해 대보름에는 ‘짬고사’를 지냈다. 짬고사는 짬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좁쌀을 뿌리며 미역이 많이 나기를 바라는 제의이다.

<표 24> 미역의 생산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짬고사												
미역채취												
미역말리기												
짬 추첨												
기세닭이												

<표 25> 짬고사의 사례

읍·면	리	제관	시기	장소	제물	제차	목적
죽변면	봉평1리	가장	대보름 새벽	배당된 짬구역	서숙, 막걸리	제물마련-진설-축원	미역풍년기원
	죽변3리	각 짬의 대표	대보름 저녁	배당된 짬구역	차조밥, 미역국, 나물	제물마련-진설-축원	미역풍년기원
울진읍	운양1리	주부가 주관	섣달그믐이나 새벽	배당된 짬구역	나물, 과일, 편, 어묵, 제주, 좁쌀	제관선출-제물마련-진설-축원-음복	미역풍년기원
근남면	산포3리	각 짬의 대표	섣달그믐 저녁	배당된 짬구역	차조, 막걸리	제물마련-축원	미역풍년기원
평해읍	거일2리	각 짬의 대표	대보름 새벽	배당된 짬구역	좁쌀	제물마련-축원	미역풍년기원
	직산2리	짬에 배정된 주민	대보름 저녁	배당된 짬구역	조밥	제물마련-축원	미역풍년기원
기성면	기성리	자식을 많이 낳은 부인이 주관	이월 초하루	배당된 짬구역	잡곡밥, 좁쌀, 밥, 나물, 술	제물마련-축원	미역풍년기원
	사동2리	짬에 속한 남성들	대보름 저녁	배당된 짬구역	조밥	제물마련-축원	미역풍년기원
	봉산1리	자식을 많이 낳은 여성들	기세닭기 후	배당된 짬구역	좁쌀, 막걸리	제물마련-축원	미역풍년기원
후포면	후포1리	자식을 많이 낳아 건강하게 키운 여성이 주관	동짓달 또는 섣달 새벽	배당된 짬구역	좁쌀이나 조밥	제물마련-축원	미역풍년기원
	금음3리	짬에 속한 여성들	보름날 아침	배당된 짬구역	좁쌀 또는 조밥	제물마련-축원	미역풍년기원

울진지역 고사의 절차와 제물의 종류는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좁쌀을 주된 제물로 사용하는 것이다. 좁쌀만큼 많은 포자가 달라붙어서 미역이 잘 자라고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기를 바라는 유감주술적 사유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7) 동신세배와 배성주고사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 올린 해촌 주민들은 조상세배와 함께 동신에게도 세배를 올린다. 주민들이 동신을 할배, 할매, ‘큰집 어른’ 등으로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동신은 주민 모두의 조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동신 세배는 설 차례를 지내기 전에 하는 경우가 많다. 해촌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동신에게 세배를 하면 좋다고 여겨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 배를 소유하거나, 배일을 하는 주민들은 조상세배에 앞서 성황당에 주과포를 차리고 집안의 평안과 해상안전, 풍어를 빌었다. 다음은 울진지역에서 전승되는 어촌의 배성주고사 사례이다.

<표 26> 배성주고사 사례

읍.면	마을	시기	주재	제물		절차
				동신	배성주	
죽변면	봉평1리	정초, 대보름	선주	어물, 과일, 술	메, 갯, 탕, 어물, 나물, 과일, 술	진설-헌작-재배-축원-소지-음복
	죽변3리	설날 새벽	선주	주과포	메, 갯, 포, 나물, 과일, 술	//
근남면	산포3리	설날 새벽	선주	포, 술	메, 갯, 어물, 포, 과일, 술	//
평해읍	거일2리	설, 정월보름, 추석, 동지	선주		메, 갯, 탕, 어물, 떡, 나물, 과일, 술	//
	직산2리	정초, 정월대보름	선주	주과포	메, 갯, 어물, 떡, 과일, 술	//
기성면	사동2리	정초, 대보름, 추석	선주	주과포	메, 갯, 어물, 떡, 나물, 과	//

(1) 죽변3리의 동신세배와 배성주고사

선주는 설날 새벽이 되면 간단히 주과포를 챙겨 평소에 자신이 모시는 할배당이나 할매당에 찾아가서 동신에게 세배를 올리고 한 해 풍어와 안전을 기원했다. 서낭세배를 드린 후에 준비한 제물을 들고 배성주고사를 지냈다. 배성주의 신체는 한지를 접은 뒤 실로 묶어놓은 것으로, 선장실에 달았다. 제물은 설달그믐날 선주의 부인이 준비했으며 집에서 구할 수 없는 과일은 죽변장에서 구입했다. 제물은 메, 갯, 나물, 과일, 포, 제주 등이었다. 제물을 진설하고 나면 선주가 술을 올린 뒤에 절을 했다. 이어서 배성주소지를 먼저 올린 후 선주와 선주의 가족들 그리고 선원들의 소지를 올렸다.